

영란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시사점

〈 요약 〉

- 영란은행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본연의 법적 책무인 물가 및 금융 안정 등을 저해할 가능성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실시
- 영란은행은 ①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반영, ② 금융기관 대상 감독 지침 및 권고 발표, ③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협력 활동 등의 범주 하에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들을 마련하여 시행 중
 - ①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반영**
 - ① 기후변화 대응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Greening the CBPS) 시행
 - ② 중앙은행 대출담보(collateral) 정책 반영
 - ② **금융기관 대상 감독 지침 및 권고 발표**
 - 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금융기관 대상 건전성 감독(Prudential Supervision) 지침 발표 및 시행
 - ②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위한 스트레스트테스트(CBES) 실시
 - ③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협력 활동**
 - ① 기후공시(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시행
 - ② 기후변화 관련 영란은행 자체 대응(CTP, Greener Bank Program) 노력
 - ③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의체(NGFS) 활동
- 영란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선도적인 중앙은행 중 하나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시사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기후변화 대응 조치는 중앙은행 본연의 책무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시 통화정책 수단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
 - 또한 기후변화 대응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공시를 솔선해 실시하는 등 금융기관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

작성자 : 김낙현 차장

I

검토 배경

-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law)(2008.11), 2050년 net-zero 목표 법제화(2019.6)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 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1952년 런던 스모그 사태**(The Great Smog of 1952) 등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인** 데 주로 기인
 - 이 같은 배경으로 **영란은행 역시** 통화정책 프레임 내에 기후변화를 적극 고려하는 행보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선도적인 중앙은행** 중 하나로 평가
- 금년 7월 노동당 신정부 출범으로 보수당 전 정부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란은행의 기후변화 대응도 강화될 가능성**
 - * 노동당 신정부는 manifesto(2024)에서 친환경 인프라 투자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향후 25년간 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에 220억 파운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024.10)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 이는 국민 경제적 부담 가중을 이유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시점을 2030년에서 5년 연기(2023.9)하는 등 환경정책 퇴보 움직임을 보이던 보수당 전 정부와 반대되는 행보
 - 현재 영란은행법에 의거 매년 재무부가 영란은행 앞 송부하는 Remit and Recommendations에 **기후변화 대응이 재차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 2023년말 보수당 정부가 영란은행 앞 Remit에 그간 포함되었던 climate change 대응을 삭제한 조치를 두고, 금년 3월 Rachel Reeves(당시 그림자 내각 재무장관)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보수당 정부의 동 조치를 뒤집을 것이라고 발표(The Guardian, 2024.3.19.)

⇒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국 가운데 기후변화 리스크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앙은행 중 하나인 **영란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영란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1

기후변화 대응의 근거

- 영란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두 가지 리스크(물리적리스크 및 이행리스크)가 본연의 법적 책무*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등을 저해할 가능성에 근거**

* 영국 금융시스템 안정 보호 및 강화(영란은행법 제2조A), 물가안정 유지, 동 전제 하에 성장 및 고용 목표를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 지원(영란은행법 제11조)

** "The physical effects of climate changes and the transition to a net-zero economy are relevant to the Bank's mission to promote the good of the people of the UK by maintaining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영란은행 홈페이지, 영란은행 기후공시 보고서 등)

- 영란은행은 본연의 책무 및 법적 프레임워크와 일치(alignment)하는 경우 net-zero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고 명시*

* "Where there is alignment with the Bank's objectives and legal framework, it acts to support the transition to a net-zero emissions economy."(Climate change, 영란은행 홈페이지)

- 또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매년 재무부로부터 권고 받은 Remit and Recommendations*에 기후변화 대응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수행

* 재무부는 연 1회 이상 영란은행에 정부 경제정책을 통지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성장 및 고용) 지원하기 위한 영란은행의 책임 및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목적 달성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을 권고(영란은행법 제9조D 및 E). 2021년 및 2022년에 기후변화 대응이 권고사항에 포함된 바 있음

- 다만 기후변화 대응이 중앙은행 역할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과는 달리 영란은행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움직임을 배경으로 영란은행 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

* ① **monetary neutrality**: 중앙은행이 친환경산업 같은 특정 부문을 다른 부문에 비해 선호하여 시장을 왜곡해서는 안 됨 ② **fiscal policy issue**: 기후변화 대응은 특정 섹터 지원, 탄소세, 규제 등 재정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임 ③ **mission creep**: 기후변화 대응 등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로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서 독립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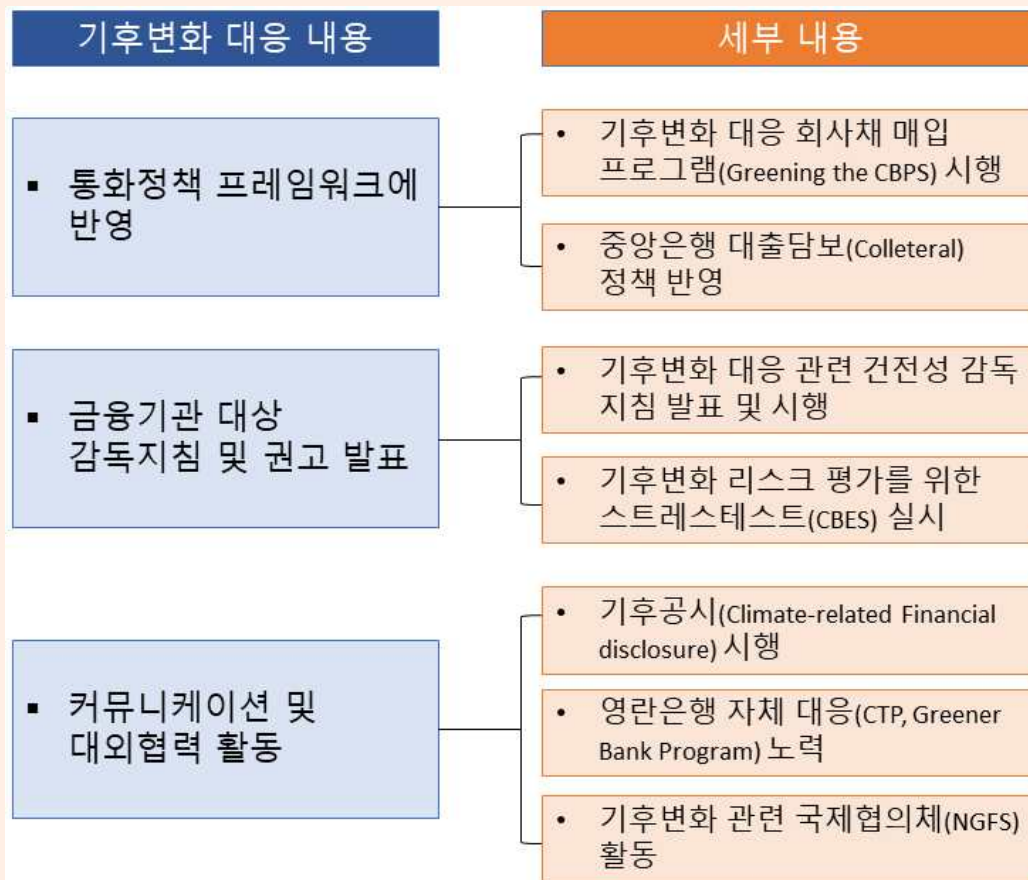
- o 2015년 Mark Carney 전 총재가 장기적인 기후변화 영향이 단기인 정치 및 재정 사이클과 미스매치(tragedy of the horizon)되는 탓에 중앙은행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후 영란은행은 기후 관련 공시 T/F를 발족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전

* "Breaking the Tragedy of the Horizon: Climate Change and Financial Stability"(Bank of England, 2015.9.26.)

2 기후변화 대응의 세부 내용

- ◇ 영란은행은 ①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반영, ② 금융기관 대상 감독 지침 및 권고 발표, ③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협력 활동 등의 범주 하에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들을 마련하여 시행 중

영란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내용



가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반영

1 기후변화 대응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Greening the CBPS) 시행 (자산 매입)

- **영란은행은** 2021.11월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CBPS; Corporate Bond Purchase Scheme)의 **적격요건에 기후변화 관련 요건을 추가** (섹터 중립 → 선호)

* 영란은행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CBPS)은 2016.8월 브렉시트 탈퇴 결정에 따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00억 파운드 규모로 처음 도입하였으며, 2020.3월에는 코로나 19 대응 조치로 매입한도를 200억 파운드로 증액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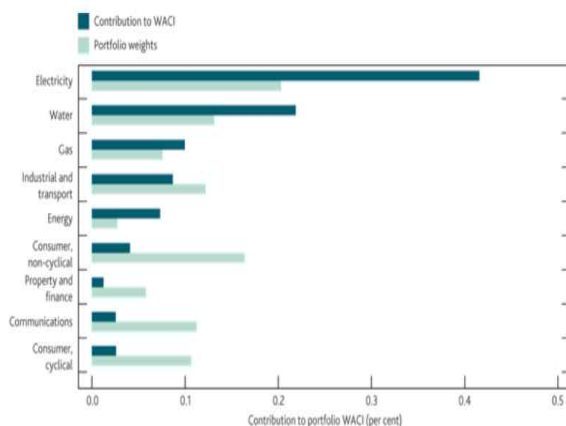
- (목표) 2025년까지 **보유 회사채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Weighted average carbon intensity)을 25% 감축하고, 2050년에는 **Net-zero를 달성**

- (추가 적격요건) **탄소 고배출 기업**의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출 필요

- 탄소 고배출 산업(에너지 및 전기, 가스, 수도)으로 분류된 기업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공개**
- **석탄채굴기업은 부적격**
- **석탄 이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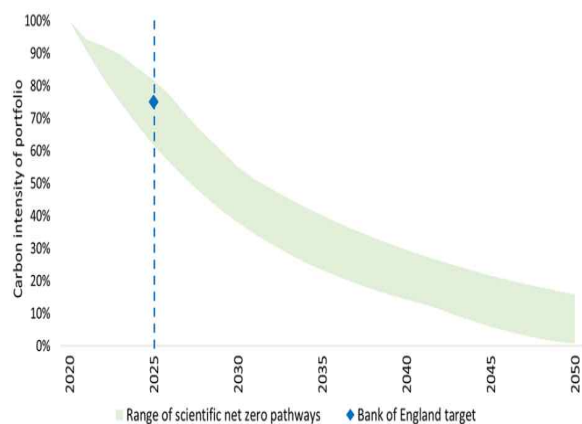
- # ① 영국에서 2025년까지(전 세계는 2030년까지) 기존 발전소 폐쇄 및 신규 투자 금지
- ② 적절한 Net-Zero 경로에 따라 배출량 감소, ③ 20% 이상의 재생에너지 포함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적격요건 추가 전 CBSP의 부문별 매입 및 탄소배출량 비중



자료: 영란은행(speech by Andrew Hauser, 2021.5)

영란은행 기후변화 대응 CBSP의 연도별 탄소배출 감축목표



자료: 영란은행(Greening our Corporate Bond Purchase Scheme)

- (매입비중 조정) 기후변화 이행 성과*가 큰 기업 채권 비중을 확대하고, 저성과 기업 채권의 비중은 축소(tilting)

* 배출수준(emissions intensity), 감축정도(reductions in absolute emissions), 기후 공시(climate disclosure), 감축목표 인증(verification of an emissions reduction target) 등 4개 평가 기준을 고려한 scorecard 점수로 평가

- 2022.2월 양적완화 종료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회사채 매입도 완전 종료 (현재 잔액 없음)되었으나, 필요시 언제든지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내에서 동 프로그램의 재가동이 가능

- 영란은행은 이후 ECB가 동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채택(22.7월)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는 등 최초 도입과 그 성과를 자체적으로 높이 평가

* "It is encouraging to see other organization, including European Central Bank, subsequently adopted similar framework in their own operations."(The Bank of England's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2023, 2023.7)

② 중앙은행 대출담보(Loan Collateral) 정책 반영 (담보 제도)

- 영란은행은 금년 8월부터 정부의 Net-zero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임대 부동산(rental property)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담보대출이 중앙은행 대출담보로 제출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추가*

* "Sterling Monetary Framework Level C Loan Collateral"(Bank of England, 2024.8.1.)

- (목적) 중앙은행 대출담보 프레임워크에 환경 지속가능성을 추가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그린 대출을 유도

- (추가 적격요건)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임대부동산 담보대출이 중앙은행의 대출담보로 제출되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가 부여한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EPC rating)*이 최소 E등급 이상이어야 함

* 2018년 발표된 영국 정부의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MEES; Minimum Energy Efficiency Standard)에서 부여하는 등급(A~G)으로 임대인은 EPC 등급이 E 미만 부동산의 경우 신규 임대가 불가능(2020.4월부터 시행)

- (조치사항) 영란은행에 대출담보로 사전 예치(preposition)되어 있는 요건 미충족 대출채권은 헤어컷(haircut)을 100%로 조정하고, 신규 담보예치는 불가

□ 향후 영란은행은 대출채권 담보 기초자산인 **건물의 에너지 효율 관련 정보를 추가 수집**하여, 동 에너지 효율이 **담보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담보 헤어컷 조정**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려할 계획

○ 한편, 홍수 등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가 큰 지역을 식별하여 해당 지역 대출채권의 담보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헤어컷 조정도 고려*

* "The Bank of England's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2024"(2024.7.30.)

나 금융기관 대상 감독 지침 및 권고 발표

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감독(Prudential supervision) 지침 발표 및 시행

□ 영란은행(PRA)은 2019.4월 은행 및 보험사 대상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감독 지침***을 주요국 중 최초로 발표

* "Enhancing banks' and insurers' approaches to managing the financial risks from climate change(Supervisory Statement SS3/19)(2019.4)

○ 동 감독 지침은 금융기관이 기후리스크 관리를 비즈니스 전략 등에 통합하는 접근을 요구하며, ① 거버넌스, ② 리스크 관리, ③ 시나리오 분석, ④ 기후관련 공시 측면에서 감독당국의 기대치를 제시

— (거버넌스)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고위 경영진에게 기후리스크 식별 및 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절하게 감독하도록 하여야 함

— (리스크 관리) 금융기관은 기존의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내에서 기후리스크를 식별, 측정,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후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 및 절차를 구비하여야 함

— (시나리오 분석) 금융기관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리스크가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 (기후관련 공시) 금융기관은 기후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와 이의 관리를 위한 조치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함

□ **영란은행(PRA)**은 2021년까지의 이행 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동 감독 지침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감독을 실시**

* 이행기간중 금융기관의 감독 지침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피드백을 제공("Letter from Sam Woods: thematic feedback from the PRA's review of firms' SS3/19 plans and clarifications of expectations"(2020.7), "PRA Climate Change Adaptation Report 2021"(2021.10))

②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위한 스트레스테스트(CBES) 실시

□ **영란은행**은 2022.5월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영국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CBES; Climate Biennial Exploratory Scenario)**를 **처음 실시하고 해당 보고서***를 발간

* "Results of the 2021 Climate Biennial Exploratory Scenario(CBES)"(The Bank of England, 2022.5.4.)

○ (목적)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취약점을 식별**하고 재무적 **리스크 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

○ (대상) 은행 7개(Barclays, HSBC 등 대형은행) 및 보험사 12개(Aviva 등 생보사 5개, Allianz Holdings plc 등 손보사 5개, AIG 등 국제손보사 2개)

* 외국 금융기관인 경우 영국 현지법인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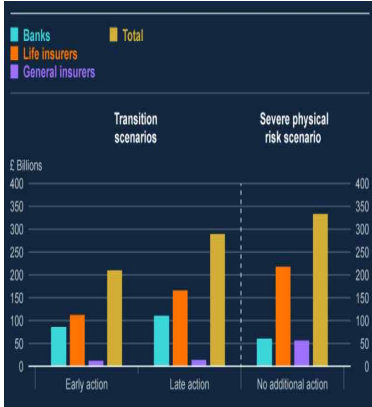
○ (시나리오) 2050년까지 30년 시계에서 net-zero 경제전환 정책의 실행 여부 및 시기별로 조기대응, 지연대응, 무대응의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

* **조기대응(Early Action)**: 시계 내내 기후정책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경우, **지연대응(Late Action)**: 기후정책이 10년 지연된 이후 갑작스럽고 무질서하게 강화되는 경우, **무대응(No Additional Action)**: 새로운 기후정책이 도입되지 않는 경우

○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은행 및 보험사의 ①전체, ②산업별, ③차주별 손실규모 등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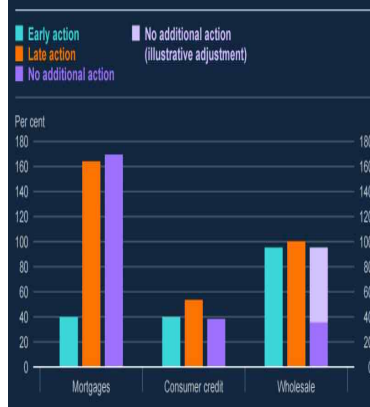
* 2022년 실시 결과에서는 모든 스트레스테스트 대상기관들은 net-zero 경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다만 전체비용 부담은 조기대응 시나리오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

은행 및 보험사의 시나리오별 예상손실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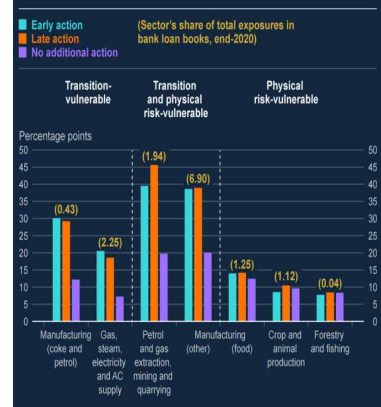
주: 1) 이행 시나리오는 조기 및 지연 대응 시나리오를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는 무대응 시나리오를 의미
자료: 영란은행

은행의 차주별 손실¹⁾ 규모



주: 1) 대출의 누적손실 기준
자료: 영란은행

은행 익스포저의 산업별 손실¹⁾ 규모



주: 1) 대출의 누적손실 기준
자료: 영란은행

- 영란은행은 2022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후 리스크의 규제자본 프레임워크 반영*을 위한 작업을 지속중

* "Bank of England report on climate-related risks and the regulatory capital frameworks"(Bank of England, 2023.3.13.)

- 다음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일정은 미정이나, 최근에도 금융기관의 기후관련 리스크 측정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 등을 발표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진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

* "Measuring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 using scenario analysis"(Bank of England, 2024.4.17.)

다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협력

1 기후공시(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시행

- 영란은행은 FSB 태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2020.6월부터 매년 영란은행에 내재한 기후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식을 시장에 공개하는 기후공시 보고서(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발간

* TCFD(Taskforce of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15.12월 조직한 T/F로 공적 기구들이 직면한 기후리스크와 이의 관리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체계 및 내용 등을 권고

- (목적) 기후리스크를 금융기관의 운영에 반영하는 데 중앙은행이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여타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관련 공시와 위험관리를 개선하도록 유도**
- (주요 내용) 영란은행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는 다음의 4가지 핵심요소 (① 거버넌스, ② 전략, ③ 리스크 관리, ④ 지표와 목표, 2024년 기준)를 포함
 - (거버넌스) 기후리스크는 은행의 내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 통합되어 관리되며, 필요시 기후관련 특정 프로세스에 의해 보완*
 - * 영란은행 내 기후관련 책임자는 부총재 2인(Sarah Breeden(금융안정부문), Ben Stimson(최고운영책임자))
 - (전략) 기후변화와 net-zero 전환 과정에서 은행의 책무와 관련하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
 -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리스크에 노출된 익스포저의 재무적 위험을 정량화하기 위한 분석 역량을 개선
 - (지표와 목표) 영란은행은 온실가스배출량(GHG; greenhouse gas)을 2030년까지 63%(2016년 대비) 감축

② 기후변화 관련 영란은행 자체 대응 노력(CTP, Greener Bank Program)

- **영란은행은** 현재 2023.6월 발표한 기후전환계획(CTP; climate Transition Plan)에 따라 **204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90%(2016년 대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물리적 운영 노력**을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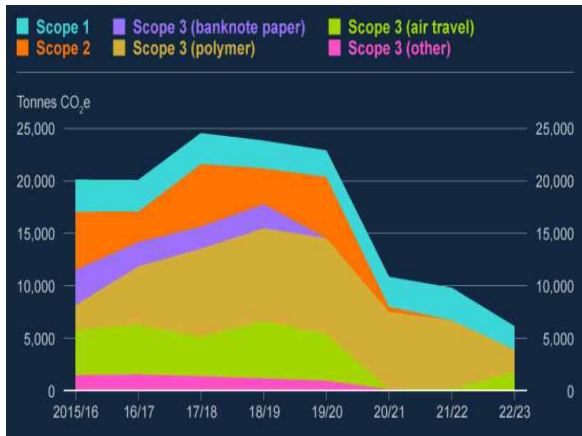
* 영란은행은 2020년에 처음으로 자체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2030년까지 2016년 대비 63%)한 바 있음

- 그간 난방시스템 개선, 재생가능전기 구입 등으로 Scope1(직접배출), 2(전기 사용)를 줄여 왔으며 향후 공급업체들과 협력하여 지폐 원료 등 구매 제품, 서비스를 탈탄소화함으로써 Scope3(제품 구매 등 통한 배출)도 더욱 감축할 방침

o 또한 Greener Bank Program*을 통해 임직원들의 행내 모든 활동에서의 친환경 노력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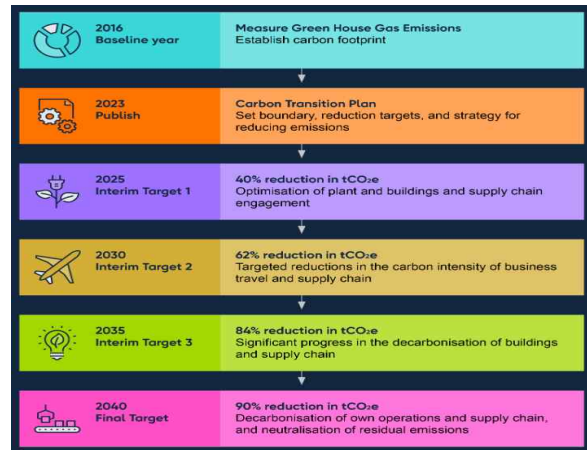
* 영란은행 임직원 150명 이상의 'green champion'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 지폐 생산 및 재활용 방식 변경, 가상회의 독려(여행 및 종이 사용 축소), 재사용 가능한 컵과 용기 사용 등 장려 등의 운동을 전개중

영란은행의 탄소배출 감축 추이



자료: 영란은행(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2023)

영란은행의 자체 탄소배출 감축목표



자료: 영란은행(The Bank of England's Climate Transition Plan)

③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의체(NGFS) 활동

□ 영란은행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기법을 공유하고 글로벌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하기 위해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국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

o 2017.12월 영란은행은 글로벌 저탄소경제 이행과정에서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관련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국제협의체인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를 창립

* 창립 당시 영란은행 Mark Carney 총재 등의 리더십 하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중앙은행 등 8개 회원이 참여하였으나 2024.5.29일 현재 141개 회원 및 21개 옵저버로 확대(한국은행은 2019.11월 가입)

o 영란은행은 NGFS의 다양한 workstream 활동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기후변화 대응 실무를 주관

* 2020.3~2022.4: Scenario Design and Anaysis Workstream(Sarah Breeden 이사(현 부총재)), 2022.5~: Monetary Policy Workstream(James Talbot 이사)

Ⅲ

시사점

- **영란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선도적인 중앙은행 중 하나***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시사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Positive Money가 발표하는 G20 국가 중앙은행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순위에서 영란은행은 유럽의 주요 중앙은행들과 더불어 상위권(2022년 5위, 2024년: 7위)을 차지

- ① **기후변화 대응 조치는 중앙은행 본연의 책무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제시***

* The Bank of England Annual Report, The Bank of England's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Bank of England 홈페이지 Climate change section 등

- **영란은행 법적 책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시 중앙은행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불필요한 대내외 오해 및 압력을 미연에 방지

- ②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내 통화정책 수단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내 자산매입프로그램 및 대출 적격담보** 등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친환경부문 신용공급을 유도**

* NGFS가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출제도, 담보제도, 자산매입 등 활용가능한 정책수단# 중 담보제도 및 자산매입에 기후변화 요소를 도입한 것임

"Adapting central bank operations to a hotter world"(2021.3월)

- 이는 기후변화 관련 기존 정책제언 역할에서 **일종의 시장조성자 역할까지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

- ③ **금융기관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리더십 발휘**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후공시를 솔선해 실시**하는 한편, 기후공시의 방식, 위험관리, 거버넌스 등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금융기관들이 이를 시행토록 유도**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서 시장을 선도

* FSB의 T/F 권고에 따른 governance, strategy, risk management, metrics and targets의 4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하는 체계를 따름

④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의 최종 책임자로 부총재 2인*을, 기후변화 대응 감독 및 실행 책임자로 이사 2인**을 각각 지정하는 한편, 이를 기후공시 보고서에 명시함으로써 영란은행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성을 강화

* Sarah Breeden(금융안정 담당 부총재): 영란은행의 정책기능 관련 기후변화 대응,
Ben Timson(최고운영책임자 부총재): 영란은행 자체 물리적 운영 관련 기후변화 대응

** James Talbot(국제담당 이사): 기후변화 관련 정책 담당,
Vivienne Grafton(은행 운영담당 이사): 물리적 운영 담당

- 또한 영란은행 전체의 기후 전략 실행 및 실행 관련 세부 계획 수립 등을 조정하는 이사 레벨의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를 운영

<참고 문헌>

한국은행(2021),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한국은행 런던사무소(2021), "[현지정보] 영란은행 기후변화 대응현황"

한국은행 런던사무소(2021), "[현지정보] 영란은행 기후변화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시행"

한국은행 런던사무소(2022), "[현지정보] 영란은행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Bank of England, Annual Report and Accounts

Bank of England, The Bank of England's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Bank of England(2015), "Breaking the Tragedy of the Horizon – Climate Change and Financial Stability – speech by Mark Carney"

Bank of England(2019), "Enhancing banks' and insurers' approaches to managing the financial risks from climate change(Supervisory Statement SS3/19)"

Bank of England(2021), "Options for greening the Bank of England's Corporate Bond Purchase Scheme"

Bank of England(2021), Greening our Corporate Bond Purchase Scheme (CBPS)

Bank of England(2022), Results of the 2021 Climate Biennial Exploratory Scenario (CBES)

Bank of England(2023), "Bank of England report on climate-related risks and the regulatory capital frameworks"

Bank of England(2023), The Bank of England's Climate Transition Plan

Bank of England(2024), Sterling Monetary Framework Level C Loan Collateral

NGFS(2021), "Adapting central bank operations to a hotter world"

PositiveMoney(2024), "Greening the Bank of England's Collateral Framework"

PositiveMoney(2024), "The Green Central Banking Scoreboar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2017),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